

2007 '책 읽는 도시 강릉' 책 축제

책 읽는 도시 강릉을 향한 힘찬 발걸음

글_장동석 기자 | 사진_이남수(사진작가)



'책 읽는 도시 강릉 2007 책 축제'가 강원도 강릉시의 '평생학습도시' 선정을 기념해 지난 10월 19일과 20일 양일간 열렸다. "손에는 책을 가슴에는 꿈을!" 주제로 열린 이번 책 축제는 중요민속자료 제5호인 선교장 일원에서 전시, 체험,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김진춘 강릉교육장은 "강릉 모든 시민들에게 평생학습도시 선정을 알리고 자축하는 행사로 책 축제만한 것이 있겠느냐"면서 "책 읽는 도시 강릉 만들기를 위한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행사에는 (재)파주출판문화재단 어린이책예술센터에서 지원한 '어린이 도서 변천사 전시회'가 선교장 서별당에서 열렸는데, 한국 어린이 도서의 변천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기획 전시되었다. 이 외에도 학급문집과 신문, 가족신문 등 학교에서 만든 간행물을 만날 수 있는 '학교 간행물 전시회'와 아이들의 사랑방 '학교 도서관 전시회', 비룡소가 제공한 도서원화들을 만날 수 있는 '도서원화 전시회'도 함께 열렸다. 초등학교 4학년 유명진 어린이는 "재미있는 책들을 한 자리에서

보니까 즐겁다"면서 "자주 이런 책 잔치가 열렸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내보였다.

체험행사로는 엄마와 함께 동시를 읽는 시낭송 체험 프로그램 '엄마와 함께 읽는 동시'와 '동화 벽화 꾸미기' 등이 다채롭게 진행되었다. 한편 식전 행사로 초등학교 저학년과 고학년,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각각 열린 '독서 골든벨을 울려라'에서는 강릉 지역 초중학생들이 참여해 자용을 겨뤘다.

의미 있는 특강과 세미나도 양일간 진행되었다. 첫날 초청특강에는 (사)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 김수연 대표가 학교를 중심으로 한 '학교마을도서관'을 주제로 강의했다. 또한 학교 도서관 운영 우수사례와 사서도 우미 교육 등도 열려 독서 교육에 관심 있는 교사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학교 도서관 운영 우수사례를 참관한 한 초등학교 교사는 "있으나 마나 한 학교 도서관이 아니라 어린이들과 지역 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문화 사랑방 수준으로 만들 수 있다는 의지를 갖게 되었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10월 19일과 20일 이틀 동안 책 축제가 열리는 선교장을 찾은 인원은 모두 1만 2천여 명. 강릉 지역 주민들의 책과 독서에 대한 갈증을 보여주는 수치라 하겠다. 행사 관계자는 “전통문화의 향취를 접할 수 있는 선교장에서 책과 독서, 그리고 그 가치를 높이는 행사를 진행할 수 있어 의미 있는 일”이라면서 “올해는 보여주기 위한 책 잔치가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책 축제가 벌어진 원년”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0월 한 달 동안 강원도 속초와 고성 등에서 책 축제가 열렸는데, 이는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이 책 관련 행사들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경기도 부천과 군포, 구리 등 수도권은 물론이고 전라남도 순천 등 다양한 지역에서 현재 책 축제가 벌어지고 있다. 한 출판계 종사자는 “각 지방의 책 축제들이 곳곳에서 열리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천편일률적인 전시 행사만으로 진행된다면 독자들이 금방 흥미를 잃을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지역 특색과 조화할 수 있는 책 축제로 거듭날 수 있는 창의적인 프로그램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글**



강릉문화원 염돈호 원장

20년 한결같이 <출판저널> 구독하다

글_장동석 기자 | 사진_이남수(사진작가)

“한 번 인연을 맺으면 꾸준히 가는 성품 때문인지 <출판저널> 역시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정기구독했습니다. 벌써 20년이 흘렀네요.”

강릉문화원 염돈호 원장은 <출판저널> 창간 독자이다. <출판저널> 창간 당시, 한 지인의 소개로 창간 독자가 된 염 원장은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 번 맺은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일찍이 낙향하여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책이 다 무슨 소용이냐고 타박할 사람도 있었겠으나, 염 원장은 한시도 책을 놓지 않았다. 그래도 “한 달에 몇 권 사보지도 못하면서 변죽만 울리는 거지”라고 겸양을 보인다.

그러나 염 원장은 진정한 독서가이자 <출판저널> 애독자임에 틀림없다. 그는 <출판저널>에 소개된 서평과 신간 안내 중에서 관심 있게 읽은 코멘트들을 메모했다가 5~6권이 모이면 서점으로 향한다.

“지방 서점에는 책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구입 의뢰를 해놓으면 며칠 지나 책이 내 손에 도착하는데, 그 책들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그때마다 <출판저널>이 효자구나 생각하죠.”

그렇게 구입한 책들이 집안 여기저기에서 <출판저널>과 함께 호흡하고 있다. 염 원장은 20년 동안 몇 차례 이사를 다니면서 안 보이는 <출판저널>이 더러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물론 버리지 않았으니 집안 어디엔가 있겠으나 당장 눈에 띄지 않으니 허전한 마음이 든단다.

“<출판저널>이 20년 세월 동안 격랑을 만났던 적도 있는 것 같다”면서도 “시대의 흐름을 따라다니기보다는 앞서서 변화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라며 염돈호 원장은 <출판저널>의 변화를 응원한다. 한편으로

는 “역리를 취하지 않고 순리를 취한다면 책을 사랑하는 이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 것은 자명한 이치”라고 <출판저널>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염돈호 원장은 강릉문화원장으로서 강릉의 전통문화를 발굴하는 것, 즉 사장된 것이나 묻혀 있는 것이 있다면 흔적이라도 찾아내고 후세에 전해 더욱 발전시키는 것이 자신의 책무라고 발한다. 덧붙여 <출판저널>의 역할도 여기에 중첩된다고 이야기한다. 즉 독자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책들을 다시금 독자들이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일, 그것이야말로 <출판저널>의 중요한 책무라는 것이다.

“판매부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독자들에게 옳은 정신을 심어준다면 그 자체로 사회의 소금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판저널>이 늘 그런 정신을 잃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글**

